

매월 셋째 목요일 장터로 오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운영 기금 마련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길가에는 10월 4일~7일 '장터'가 열렸다.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추위의 장터 수익금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

"500원이예요. 보고 가세요."
10월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 앞길. 차마, 바지, 상의 할 것 없는 의류들 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좌판을 구경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4일~7일 '장에 가는 날' 행사를 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18일까지 계속되는 '탑골 사람들' 행사의 일부기도 한 '장터'에는 어르신들과 행인들에게 신명나는 행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속 뜻'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경로식당 후원기금 마련'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복지관에서 기증받은 의류 4000여점을 판 수익금이 매일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에 사용되는 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은 하루 2000명. 경로식당 운영 자금만 350~400만원이다. 때문에 경로식당은 항상 후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명절이나 연초·말을 제외하고는 후원금도 줄어들어 운영 자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식당에 반드시 필요한 채소 후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번 장터를 통해 경로식당 운영 기금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3번째 목요일 센터 3층 중앙공원에서 펼쳐질 '장터'를 통해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경로식당 후원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02)739-9501

글·사진=김강진 기자

■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0월의 환우 백혈병 투병 김지민양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의 환우로 선정된 지민이(7·사진). 요즘 지민이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지민이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기 때문. 지민이는 3월, 조치가 맞는 조절모세포를 찾아 이식받았지만 6월에 다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전환(2차성 백혈병)됐다. 여기에 숙주반응과 약물부작용으로 암세포가 나타나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이를 살리고자 진 빛은 점점 지민이 부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지민이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이창근 1만원 윤선애 1만원
총 누적성금 42,186,050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원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현불**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중국·4대 성지를 찾아서...)

제1탄 관음성지

양주, 냥파, 천태산, 보타산 5일
11월 7일 출발 | 접수마감: 10월 31일

중국불교 4대 성지 순례

- 1일차: 인천국제공항 출발, 양주 도착, 국경사지성신지공원탐방, 냥파 도착
- 2일차: 보타산, 보제사, 범우사, 해계사, 관음대불(법회), 법음동, 저족림
- 3일차: 낙간산, 보타산, 냥파 도착, 천등사 참배
- 4일차: 이왕사 참배, 양주 이동, 서호 유람, 영은사, 육취탑 견학
- 5일차: 양주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2004-8239

서울시 종로구 집수처: TEL 02)2004-8295~6 청운동 54 | 사업팀 최현규 팀장: 018-366-1002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 돕는 '동심회'

생명나눔 열풍 이어가야

최근 불교계에 불고 있는 '생명나눔' 열풍으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생명나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생명나눔 소식지 '살과 생명나눔 10월호'는 어김없이 발간됐고, 전국 생명나눔 회원들의 손에 쥐어졌다.

동심회 회원들이 9월 28일 꼼꼼하게 지로용지와 소식지를 함께 넣고 풀칠해 발송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송한 생명나눔 소식지를 회원들이 읽고, 어딘가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동심하다.

4년 전부터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에 나선 동심회 보살들에게 생명나눔 회원 가입은 '기본'이다.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식지 발송이라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의식을 가진 4사람이 모여 '동심회'라는 이름 아래 뭉쳤다.

동심회 보살들의 활동은 소식지 발송 작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명나눔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서도 빛을 발한다.



동심회가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 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 동심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찾는다.

"'생명나눔'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회원 가입을 권해야죠. 캠페인을 호객행위처럼 해서 안 되겠지요."

손강자 보살은 생명나눔의 철저한 원칙이 '자발성'이라 지적한다. 그래야만 진심어린 생명나눔 열풍이 이어져나간다고 믿는 까닭이다. 김영숙 보살도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손보살은 현재육·조한순 보살과 함께 고대 구로병원 고객센터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가입을 권하고 있는 보살들은 "우리만 좋은 일 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며 앞으로도 웃으면서 '생명나눔'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한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감사드립니다

-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 -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에 참석하여 주신 노력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암사가 유서 깊은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오늘날 대표적인 비구니승가대학중의 하나로 도제양성은 물론 불자들의 참된 귀의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노고의 결실인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이 여러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깊은 감동의 자리로 잘 회향되었습니다. 후, 경황이 없는 중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예를 올리며, 왕림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9년 10월 3일

청 암 사 승 가 대 학 학 장 의정 지형 총 무 대웅 합장
주 지 의진 상덕 간경대종일동

